

11월 9일 (월) / 롬 7-9

- **내용요약:** 7장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율법으로부터 해방 되었다는 사실(1-6절)을 선언한 후에, 바울은 혹시 율법 그 자체를 악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오해할지 모르는 자들을 위해 율법의 진정한 역할을 설명한다(7-13절).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죄의 무제와 완전히 무관한 처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의 삶을 누리도록 권면하고 있다(14-25절). 8장에서 바울은 죄의 문제로 갈등하던 성도들이 성령에 의해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 후(1-11절), 하나님의 상속자로 현실 세계의 고난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될 미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인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12-25절).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라곤 전혀 없음을 감동적으로 증거한다(26-39절). 9장에서는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1-13절). 이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아무도 항변할 수 없다는 사실과(14-29절)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강조하고 있다(30-33절).
- **질문:**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인가? (9장)
- **생각하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11월 12일(목) / 고전 1-3

- **내용요약:** 1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문안과 감사의 뜻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다(1-9절). 곧바로 고린도 교회의 뼈아픈 분열 실상을 지적하고 그 분열상의 근본 이유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 있음을 밝힌다(10-17절). 더불어 바울은 십자가의 도(道)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져도 정녕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지혜임을 가르친다(18-31절). 교만한 인간의 지혜에 집착함으로써 교회의 분란을 초래한 사실을 권책했던(1장) 바울은 2장에서 인간중심의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파당을 형성했던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을 깨우치고자 전도의 방법(세상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전도의 내용(예수와 십자가)을 분명히 알렸다(1-5절). 그리고 참된지혜는 복음이요(6-9절), 그 지혜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10-16절)을 깨우쳤다. 3장에는 분쟁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교회 지도자에 대한 바른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인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비교한다. 즉 교회 분쟁의 불씨가 불완전한 지도자를 절대시했기 때문임과,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일꾼이요(5-9절), 주의 집을 짓는 건축자에 불과함과 모든 교인들은 주의 거룩한 주의 거룩한 성전임을 밝힌다.
- **질문:** 십자가의 도(道)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나? (1장)
- **생각하기:** 하나님보다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은 위험하다.

11월 15일(일) / 고전 10-12

- **내용요약:** 10장에서 바울은 출애굽 당시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불평과 불순종으로 일관함으로써 결국 멸망했던 이스라엘의 비극적 역사에서 얻는 교훈(1-13절)과 그 같은 역사적 반추를 통해 우상숭배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그것에서 피할 것을 권면하였다(14-22절). 그리고 다시 우상제물 문제로 돌아와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논한 후(23-27절), 타인을 위해 절제함이 마땅함을 가르쳤다(28-29절). 또한 대결론으로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것을 가르쳤다(30-33절).

11월 10일(화) / 롬 10-12

- **내용요약:** 10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 자격을 성실하게 된 원인을 언급하고 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義)를 거부하고 율법의 행위를 통한 자기 의(義)를 세우려 했으며(11-13절), 아울러 복음을 듣고도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14-21절)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이다. 앞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選民)으로서 그 자격을 잃게 된 원인을 설명한 바울은 이제 11장에서 그들의 궁극적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다루고 있다. 11장은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을 받은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1-12절)과, 따라서 이방인 성도들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13-24절)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고(25-32절),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와 섭리에 대해 찬양하고 있다(33-36절). 12장은 로마서의 후반부의 시작 부분으로 성도 삶의 실천(實踐)을 강조하고 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자세(1-2절), 교회에 대한 성도의 자세(3-8절), 사회와 이웃에 대한 성도의 자세(9-21절) 등으로 구성된다.
- **질문:**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잃은 이유는? (10장)
- **생각하기:**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행위로 얻고자 했던 경험은 없었는가?

11월 13일(금) / 고전 4-6

- **내용요약:** 4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찢어지는 분란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교회는 주의 일꾼들을 인간적으로 추앙하거나 다른 일꾼들을 비판하는 일을 삼가라고 권면한다(1-5절). 그리고 위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자들의 자고(自高)함과 사도들의 겸손함을 비교한 후(6-13절), 매우 간절한 어조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겸손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14-21절). 바울은 5장에서 6장까지 고린도교회가 안고 있던 윤리, 도덕적 문제에 관해 사도적 권면을 한다. 당시 고린도는 타락과 범죄의 최첨단을 걷는 부패한 도시였는데, 사악한 풍조가 교회 안으로 침투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내에서 발생한 근친상간과 같은 패륜적 사건을 숨김없이 지적하고(1-8절) 패륜아들을 향한 엄중한 경계와 아울러 교회 내의 성결을 촉구하였다(9-13절). 6장에서 바울은 거룩한 교회의 일원인 성도 간에 발생한, 세상 법정에 제기한 소송 문제에 대해 교훈한 후, 하나님 나라에서의 거룩한 기준을 설명한다.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를 남용함으로 빚어낸 육체적 타락상을 고발하고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 도구로 사용되어야 함을 가르친다(12-20절).
- **질문:** 교회가 찢어지는 분란의 중심에 누가 있었는가? (4장)
- **생각하기:** 말과 돈으로써 구원을 사고파는 이단들에 많은 이들의 마음이 미혹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4:20절).

지금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던 분쟁(1-4장), 음행과 타락(5-7장), 우상제물(8-10장) 등에 관한 문제에 사도적 답변을 제시하였다. 11장에서 14장까지는 교회의 공적집회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중 11장에는 공 예배 시 여성들이 수건을 쓰는 문제(1-16절)와 성찬을 오용하는 데 다른 문제(17-34절)를 다루고 있다. 12장에서 14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던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성령의 은사 문제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11월 11일(수) / 롬 13-16

- **내용요약:** 13장은 앞장에 이어서 국가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다루고 있으며(1-7절), 이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한 후에(8-10절), 종말을 대비하여 영적으로 늘 깨어 있는 생활 태도를 지니도록 성도들을 권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11-14절). 14장의 내용역시 성도들의 삶에 관한 것으로 당시 성도들 사이에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던 음식이나 절기 문제를 놓고 결코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는 권면이 언급되고 있으며(1-12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도록 촉구하고 있다(13-23절). 15장에서 바울은 서로를 돕고 용납하라고 강조한다(1-13절).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까지는 서신 채로 기록된 로마서의 종결 부분으로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관심사와 문안 인사로 이루어져 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 본서의 수신자들인 로마의 성도들을 방문하고자 하는 여행계획이 소개되고 있다. 16장은 로마서를 로마 성도들에게 전달할 비보를 소개하고 이어 로마에 있는 동역자들에 대한 문안인사를 이름을 거론하며 전한다(3-16절). 그 후 바울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분파주의자들을 경계할 것을 당부하고, 송영과 축도로 로마서를 끝맺고 있다.
- **질문:** 로마서를 로마 성도들에게 전한 이는? (16장)
- **생각하기:** 주의 일을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함께 할 동역자가 있는가? (16:4절).

11월 14일(토) / 고전 7-9

- **내용요약:** 7장은 앞선 패륜적 부정과 깊은 연관이 있는(5-6장) 결혼문제에 관한 조언을 기록한다. 결혼에 관한 바울의 원칙론적 교훈(1-7절), 독신생활(8-9절) 및 이혼에 관한 조언(10-24절), 처녀의 결혼에 따른 조언(25-38절), 과부의 재혼에 관한 조언(39-40절) 등이다. 8장 1절-10장 33절까지는 고린도 교인들의 두 번째 물음에 대한 바울의 사도적 답변으로서 주로 우상제물과 성도의 자유의 한계에 관계된 교훈이다. 8장은 우상제물문제에 관한 조언으로 성숙한 신앙인의 견지에서 볼 때 우상제물은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1-6절). 하지만 미성숙한 신앙인의 견지에서는 우상제물이 걸림돌이 되기에 성숙한 신앙지식이 있는 자가 사랑으로 연약한 신자들을 포용해야 한다(7-13절). 9장에는 바울 자신이 지닌 고유한 진리를 소개하고, 복음의 증인된 자로 자신의 모든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고 종의 자세를 견지했음을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영광된 미래를 얻기위해 절제와 부단한 노력이 요구됨을 가르친다.
- **질문:** 바울은 우상제물에 대해 어떻게 가르쳤는가? (8장)
- **생각하기:**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후 친히 제정하신 거룩하신 제도이다(창2:18-25절). 따라서 인간은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을 얻게 되며, 또 건강한 신앙생활의 공동체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12장에서 성령의 은사의 대원칙(1-3절), 성령의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4-11절), 몸과 각 지체의 비유를 통해 가르치는 성령의 은사(12-26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다양성과 통일성등을 다룬다.

- **질문:** 바울은 '무엇을 하든' 누구를 위해 할 것을 명했나? (10장)
- **생각하기:** 하나님의 은사와 자유를 받아주신 자는 더 이상 자기 중심(세상중심)의 삶과 신앙관에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유익을 생각해야 하며(10:24절),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모든 행동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한다(10:31절).